



국제화 프로그램 참가 결과보고서 (교환/방문학생)



인적사항				
파견 정보	파견 국가	독일	파견 학교명	바이로이트 대학교
	파견 시기	[2025]학년도 [2]학기	파견 기간	1년
	수강 과목 개요	과목명		과목 설명(간략)
		Deutsch(German):Grundkurs 4(B1.1)		독일어 수업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표현해보는 수업
		Deutsch(German):Lesen-Verstehen-sprechen(B2.1)		주제에 대한 2개의 텍스트를 읽고, 그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수업
		Deutsch(German):Ausdrucksfähigkeit(B2.1)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 집중한 수업으로 주제에 대해 말하기, 쓰기를 연습한다.
		Englisch:Refresh your Englisch A2.1/A2.2		영어 문법과 표현 연습하는 수업
		deutsch(German):hoeren und sprechen(B2.1)		주제에 대한 듣기파일을 듣고,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수업
		Filmgeschichte 1, 2		영화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고 영화를 보게 됨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nd Sustainable Development Law		환경문제를 국제법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수업
		medien projekt:konzept		프로젝트 제작하기 전 이론, 실습이 함께 있는 수업, 이 프로젝트의 최종과제는 오디오,비디오 대본 작성하는 수업
		medien projekt:Realisierung		학생들의 대본들로 3-4명씩 팀을 만들어 실현하는 과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교수님과의 3번의 상담이 필수적이다. 마무리로는 성찰보고서 작성이 있다.
체험수기	1. 파견대학 1. 파견 대학 소개 바이로이트 대학교는 독일 바이에른 주 바이로이트에 위치한 대학교입니다. 다른 독일 학교와는 다르게 모든 학과 건물, 중앙 도서관, 학생식당(Mensa), 체육 시설이 한곳에 모여 있는 캠퍼스입니다. 따라서 수업 간 이동 동선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캠퍼스 중앙에 동그란 공간이 있는데 여름에는 그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교환학생을 위한 영어 진행 강의를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어 전공 및 교양 영역에서 다채			

로운 학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 체계가 매우 정교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정규 학기 첫 번째 주에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 주간을 통해 거주지 등록, 계좌 개설, 수강 신청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현지 학생과 1:1로 매칭되는 버디 프로그램 및 언어센터의 독일어 강좌를 통해 독일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캠퍼스 내에서 다양한 학술·문화 행사와 체육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고 ESN 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제학생 간 교류를 활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파견 전 절차

합격자 발표(2025.04.11.)

합격자 교육(2025.04.16.)

어플리케이션 작성 후 제출(~2025.5.15.)

출국전 비자 준비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월 992유로의 재정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엑스파트리오를 통해서 준비하면 편한데 최종적으로 12133 유로 정도를 유로로 환전했습니다.

비자 발급비용은 한국에서 하면 70유로면 하는데 한국 현금으로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엑스파트리오 value package를 이용하면, 보험 준비와 비자발급을 위한 서류준비를 잘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수강신청 방법 및 기숙사

입학허가서가 나온다면, 기숙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학허가서를 가지고 안내된 링크로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빠르면 빠를수록 선호하는 기숙사에 배정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9월 즈음 학교 계정을 만들라는 이메일이 오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 바이로이트 학교 학생의 학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언어 수업들의 수강 신청은 보통 개강후 2주-3주 뒤부터 하게 되고, 전공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은 미리 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의 종류는 비어켄, 크로이츠슈타인, 타퍼트가 있는데 그중에 비어켄이 287유로(테라스 포함)로 가장 저렴합니다.

4. 파견대학 교환 프로그램 담당자, 담당부서 이름 및 연락처

Insa Kind

+49) (0)921/555360

incoming-exchange@uni-bayreuth.de

II. 학업

1.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syllabus 등 수강 관련 내용 정리하여 첨부제출)

-filmgeschichte 1,2 : 이 수업은 영화의 역사에 대한 수업이다. 독일어로 진행되고 이론 설명 이후에 영화 한편을 보고 끝나게 된다.

가장 초기의 영화부터 10년전 영화까지 보게 되면서 영화의 변천사를 흐름에 맞춰 인식할 수 있게 되고 현대적인 영화에 오면서 이념적인 갈등 주제를 다룬 영화를 보면서 어떤지

본인의 생각도 정리해 볼 수 있게 된다.

-refresch A2.1/A2.2 : 이 수업은 사전에 레벨테스트가 없는 영어 수업으로 기초부터 천천히 영어를 습득할 수 있다.

예전에 배웠던 것들도 점검하면서 올바른 영어 말하기, 문법, 쓰기를 배우게 된다.

- medienprojekt:konzept: 카메라와 오디오에 대해서 매주 번갈아 가면서 이론을 배우게 되고. 특히 오디오는 녹음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사용법, 오디오 드라마 녹음, 편집 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카메라는 어떻게 촬영 구도를 잡는지, 함께 촬영하는 현장상황에 대해서 배운다.

마무리에는 오디오,비디오 각각에 해당하는 작품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학기 말에 조를 짜기 시작해서 제작의 수업을 다음학기에 하게 된다.

- medienprojekt:realisung: 다큐 작품에 오디오 촬영담당으로 참여하여, 레퍼런스 회의, 교수님과의 회의, 미리 장비 연습하기, 작품촬영 까지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를 제작하기 위해 노력한다. 마무리는 성찰보고서 작성으로 끝이 난다.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nd Sustainable Development Law

이 수업은 여름학기에 열린 수업인데 4회 출석, 적은 수업일수의 장점이 있지만, 환경문제들을 주제로 국제법의 기준으로 고민하게 한다.

기말로는 에세이 작성인데, 그 양이 논문의 수준이다.

영어 수업이고 수업중에 토론이 많다.

2. 외국어 습득 정도

파견 전 독일어 B1 자격증을 취득하며 나름의 준비를 마쳤으나, 현지에서 현지 학생들과 직접 학업 및 일상을 함께하며 소통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벽이 존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단어를 많이 암기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 입 밖으로 내뱉는 실전 연습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깨달았습니다. 틀린 표현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태도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에 개설된 독일어 강좌를 주기적으로 수강하며 실전 표현을 꾸준히 연습하였고, 그 결과 현지에서의 독일어 사용에 훨씬 익숙해지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국적 교환학생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영어 소통 능력의 중요성을 크게 느꼈습니다. 초반에는 언어적 한계로 위축되기도 했으나,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어로 표현하려 노력하면서 언어적 성장을 체감했습니다. 특히 메신저 대화 시 올바른 표현을 익히기 위해 AI 도구를 적극 활용하였는데, AI가 제안하는 세련된 문장을 습득하고 직접 응용해 보는 과정을 거치며 영어 표현력과 어휘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3. 학습 방법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AI나 번역 도구의 도움 없이 현지 언어를 완벽히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을 자주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좌절하기보다는 해당 도구들을 학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주도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선 독일어 실력 향상을 위해 현지 친구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배운 표현을 일상에서 계속 시도해 보았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 'Easy German'을 참고하여 현지인들이 자주 쓰는 생생한 상황별 표현을 미리 연습하고 숙지했습니다.

더불어 복잡하거나 정교한 문장 표현이 막힐 때에는 'DeepL'과 같은 번역 어플을 활용해 표현하고자 하는 한국어 문장을 자연스러운 독일어 구문으로 변환하고, 이를 직접 외워

실전에 응용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도구의 스마트한 활용과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실전 소통 태도가 어우러져,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외국어 적응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III. 생활

1. 입국시 필요한 물품 및 현지 물가 수준

입국시 필요한 물품

[입국 시 필요한 물품 추천]

생활 및 가전용품: 독일의 겨울 추위에 대비해 전기장판은 필수적으로 챙겨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현지보다 한국에서 미리 구매해 오는 것이 경제적인 침대 커버나, 날씨가 좋은 날 야외 피크닉에 유용하게 쓸 돛자리를 하나 챙기면 생활의 질이 크게 올라갑니다. 식품 및 소모품: 다시다, 불닭소스, 코인육수 같은 한식 조미료 및 육수류를 챙겨오면 현지 정착 초기 식사 준비에 매우 편합니다. 반면 면봉, 화장솜 등 생필품은 피부가 특별히 예민하지 않다면 현지 드럭스토어(dm, Rossmann 등)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짐을 줄이는 것을 권합니다.

[현지 물가 수준 및 외식/외식비]

전반적인 물가: 체감 물가는 한국과 비슷하거나 살짝 저렴한 편입니다. 특히 마트에서 판매하는 과일, 야채, 유제품(치즈, 요거트 등)의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종류가 다양하여 부담 없이 장을 볼 수 있습니다.

외식 비용 및 생활 팁: 식당에서 외식을 할 경우 메뉴 하나당 기본 15~20유로 선으로 외식비 부담이 큰 편입니다. 따라서 식당 외식보다는 마트에서 재료를 사서 직접 요리해 먹는 것이 생활비를 절약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2. 식사 및 편의시설(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의료는 엑스파트리오 value pacege에 포함되어 있는 TK 공보험을 이용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130유로 정도 했고, 연초에는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오르고, 생일에는 나이가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다. 거의 20만원을 보험료에 지출하게 된다.

이 보험으로 가다실 맞으면 10유로를 제외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

Bahnhofstraße 15, 95444 Bayreuth-Schießhaus(예약없이 가다실 맞는 병원)

은행은 N26 계좌를 사용했다. 애플페이 구글페이를 이용해서 실물카드 없이 사용했고, 현금 출금을 위해서는 트래블카드를 이용해서 출금했다.

이 계좌 생성을 위해 온라인 여권인증 영상통화가 필요한데 질문후기를 미리 찾아보고 아침 일찍 전화하는게 성공률이 더 높아진다.

학생인증이 되면 도이치란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데 달에 30유로로 독일 전역의 모든 기차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통신은 알디톡을 사용했다.

알디 마트에서 파는 유심칩인데 처음 스타터 패키지를 사서 유심 등록과 여권인증 영상통화 후 유심이 활성화 되면 바꿔 끼우면 된다.

처음 시작할 때 심카드 비번을 입력하라고 하는데 심쪽에 있는 pin 1 or pin 2에 있는 번호를 입력하면 사용할 수 있다.

gutschein을 이용한 방법은 금액권을 사서 충전해서 쓰는 방법이고, 계좌 연동으로 돈이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다.

초기 설정을 바꿀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3. 여가 생활 및 체험 활동 내용

학교 스포츠 센터에서 재즈 댄스를 3개월동안 배웠다. 한 학기에 30유로 이고, 주의 1회 수업이다. 수업에서 30분 정도는 코어 운동 위주와 발레 기본동작을 배우고, 30분 정도는 노래에 맞춰 재즈 댄스를 배우게 된다.

독일은 공원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는 것 또한 취미생활이 될 수 있다.

거주지 등록을 하게 되면 바이로이트 내에 사용할 수 있는 혜택들이 담겨있는 쿠폰북을 주는데 그걸 이용해 바그너 박물관, 오페라 하우스를 들어가 볼 수 있다.

개강 첫 주 스피드 프렌딩을 통해서 외국인 친구들과 만날 수 있고, 이를 계기로 친구가 되어 잘 어울릴 수 있다.

주말과 방학을 이용해 바이에른 근교, 동유럽, 이탈리아를 다녀왔다. 이렇게 여행을 계획 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역사적 사실들에 대해 관심가질 수 있고, 문화에 대해 잘 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

4. 체류기간 소요 경비(최대한 자세하게 표로 작성)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기 숙 사비	275	275	275	287	287	287	287	287	287	287	287
식비	110	94	70	115	83	100	103	90	150	110	100
통 신 비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생 필 품	134	25	50	10	10	50	40	15	50	70	30
보 험 료		139	139	139	141	141	141	141	146	146	146
도 이 치 란 드 티 켓	-	24.86	24.86	29.86	29.86	29.86	29.86	29.86	29.86	29.86	29.86
학 교 등 록 금	165.8	-	-	-	165.8	-	-	-	-	-	-
라 디 오 세	-	-	-	92	-	-	56	-	-	56	-
여 행 비용	-	200	340	200	180	-	-	30	250	850	

항공료: 인천->프랑크푸르트 (루프트 한자): 160만원

프랑크푸르트-> 인천 (아시아나): 110만원 (660 유로)

총 프로그램 비용: 10,000유로(1700만원)

IV.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1. 참가 성과(참가 후 느낀 점 등)

이 경험은 단순한 학업적 성장을 넘어, 타인과 세계, 그리고 나 자신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 인생의 소중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선,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며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존재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편견 없이 타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배우면서 한층 넓고 유연한 글로벌적 시야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익숙한 환경을 떠나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해결하는 시간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해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즐거움을 느끼는지, 어떤 성향과 장단점을 가진 사람인지 깊이 성찰할 수 있었고, 이는 향후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단단한 이정표가 되어주었습니다.

낯선 도전 속에서 스스로를 증명해 냈던 이 시간들과 가슴 깊이 남은 인상적인 기억들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다시없을 뜻깊은 경험과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2. 향후 계획(학업 계획, 진로 계획)

이 교환학생 생활은 그동안 스포츠 마케터와 스포츠 기자 사이에서 이어지던 진로 고민에 명확한 답을 내려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다양한 스포츠 문화와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스포츠가 주는 감동과 관련 정보 및 분석을 대중에게 전문적으로 전달하는 '스포츠 기자'로서의 진로를 확립하였습니다.

귀국 후에는 본격적으로 스포츠 기자가 되기 위한 실천적 역량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스포츠 기사 작성법과 언론 직무 관련 이론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미디어 전공 과목을 이수하며 취재 및 기사 작성 능력을 고도화할 것입니다. 나아가 스포츠 관련 대외활동과 언론사/스포츠 단체 인턴십에 도전하여 현장 실무 경험을 다각도로 쌓고, 독일에서 경험한 글로벌 스포츠 문화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기사를 작성하는 전문 스포츠 기자가 될 것입니다.

3. 향후 참가 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교환학생 파견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당부하고 싶은 것은 회화 능력의 중요성과 도전적인 태도입니다. 언어적 완벽함보다는 현지인 및 다국적 학생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회화 실력과 태도가 현지 적응의 큰 영향을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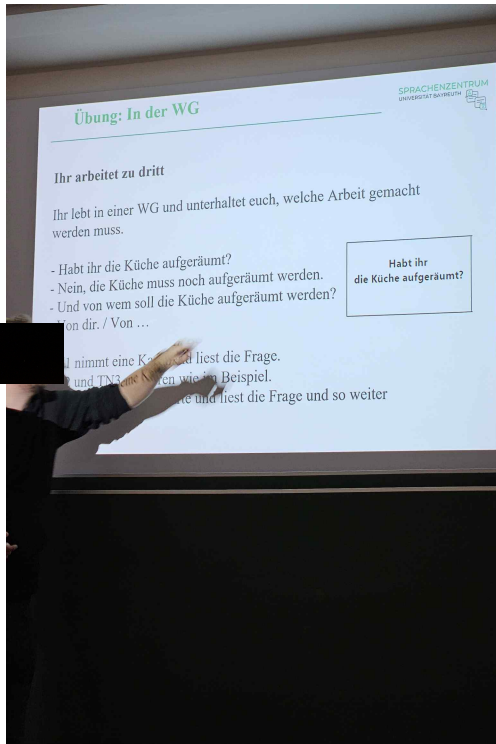
익숙한 한국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뛰어들어 살아가는 과정 자체만으로도 인생에 둘도 없는 값진 자산이 됩니다. 스스로 여행을 기획해 떠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마주하며 새로운 문화를 몸소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현지에서의 경험과 느낌을 짧게라도 기록으로 남겨두는 글쓰기를 추천합니다. 일상과 여행, 수업 중 느낀 성찰을 매일 기록해 둔다면 단순한 추억을 넘어 귀국 후 스스로의 성장과 향후 진로를 돌아보는 데 커다란 자산이자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4. 기타사항

독일 현지에서 병원을 가게 된다면 학생제 처방을 잘 안내줍니다. 따라서 파견전에 상비약, 특히 감기약을 잘 챙겨 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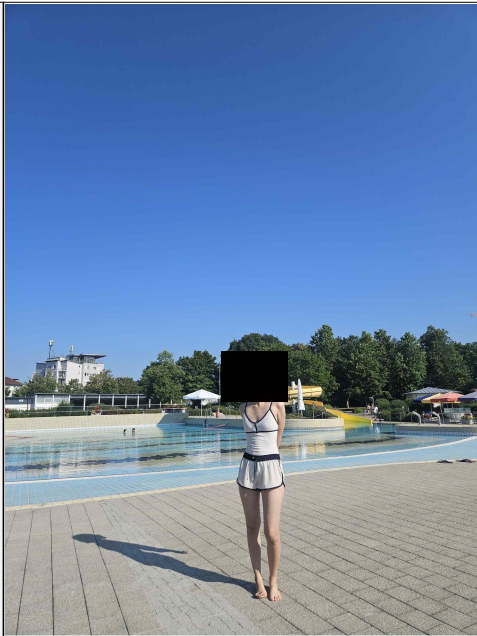
V. 활동 사진(2장 이상, 설명 필수)



(독일어 수업 - 교수님이 표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수업사진: medienprojekt:konzept- video 수업시간에 촬영현장에 대한 실습 수업, 어떻게 카메라를 배치하여 주어진 대본을 수행할지에 대한 수업



kreuzsteinbad 수영장 가서 찍은 사진



프로젝트 촬영 중 찍은 사진



프로젝트 촬영 끝나고 주인공인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테스트 촬영 과제가 있어서 하루동안 직접 촬영에 참여한 현장



국제화 프로그램 참가 결과보고서(교환/방문학생)



인적사항

파견국가	독일	파견학교명	바이로이트 대학교
파견시기	2025년도 2학기	파견 기간	1년

파견정보

수강과목개요

과목명	과목설명(간략)
Englisch: Refresh your English A2.1	듣기, 말하기, 쓰기를 포함한 말하기 중심의 영어 A2.1 수업
Japanisch: Grundkurs 1 (A1.1)	독일어로 진행되는 듣기, 말하기, 쓰기를 포함한 말하기 중심의 일본어 A1.1수업
Deutsch: Grundkurs 4 (B1.1)	듣기, 말하기, 쓰기를 포함한 말하기 중심의 독일어 B1.1 수업
Filmgeschichte	고전 영화의 역사를 다루는 수업
Deutsch: Hören-Verstehen-Sprechen (B2.1)	텍스트를 듣고 토론 위주로 진행되는 독일어 B2.1 수업
Deutsch: Lesen-Verstehen-Sprechen (B2.1)	텍스트를 읽고 토론 위주로 진행되는 독일어 B2.1 수업
Deutsch: Kompaktkurs (B2.1)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가 모두 포함된 일반적인 독일어B2.1 수업
Japanisch: Grundkurs2 (A1.2)	독일어로 진행되는 듣기, 말하기, 쓰기를 포함한 말하기 중심의 일본어 A1.2수업
Filmgeschichte	현대 영화의 역사를 다루는 수업
Vorlesung Alte Geschichte (Römische Sozialgeschichte)	로마사 수업

I.파견대학

1. 파견 대학 소개

바이로이트 대학교는 독일 바이에른 주 오버프랑켄 지역에 위치한 대학으로 1975년 개교한 신생 대학이다. 외국이 학생이 많은 편이며, 작은 대학도시에 위치한 대학 특성상 외국인 유학생에 호의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다.

2. 파견 전 절차

- 2025-2학기 독일 파견 교환학생 참가자 모집공고 확인 및 신청(2025.03.18~2025.03.28)
- 합격자 교육(2025.04.16)
- 입학허가서 전달받음 및 기숙사 신청(2025.05.28)
- 기숙사에 대한 계약서 전달받음(2025.09.04)
- 독일 도착(2025.09.30)
- 비자 신청 및 비자 날짜 확정(2025.12.12)
- 안멜둥 (2025.10.27)
- 독일 계좌 개설(2025.10.12) - 비자 면접(2025.12.29)
- 슈페어konto 활성화 (2025.11.04)
- 비자수령 (2026.01.21)

체험 시기

3. 수강신청 방법 및 기숙사

수강신청은 CMLIFE라는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언어 수업 수강신청은 반 배치 테스트를 보거나 자격증을 제출하여 일반 과목 수강신청에 비해 늦게 진행된다. 언어 수업과 같은 수강인원 제한이 있는 수업은 대기 명단 (Warte Liste)에 등록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 정정기간은 1주일간 진행된다.

기숙사는 오버프랑켄 학생 기숙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1, 2, 3지망 기숙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교환학생은 보통 Birken, Kreuzstein 기숙사에 배치되는 편이며, 교환학생의 기숙사 배정은 비교적 보장되는 편이다. 학기 시작 시기에 맞춘 4, 10월 입사와 1달 전인 3, 9월 입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숙사 퇴소를 원한다면 퇴소일로부터 최소 2달 전 기숙사 측에 알려야 한다.

4. 파견대학 교환 프로그램 담당자, 담당부서 이름 및 연락처

Insa Kind

International Office

incoming-exchange@uni-bayreuth.de

+49 (0)921 / 55-5322

II. 학업

1.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syllabus 등 수강 관련 내용 정리하여 첨부제출)

출석 점수로만 ECTS를 얻을 수 있는 Filmgeschichte나 Vorlesung Alte Geschichte (Römische Sozialgeschichte)같은 수업을 추천한다.

또한 VHB(Virtuelle Hochschule Bayern)와 같은 온라인 수업도 있기 때문에 유연한 학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외국어 습득 정도

한국에서 독일어를 학문으로써 배운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독일에 처음 와서 의사소통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독일에서 생활하며 독일어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은 비교적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괴테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며 공부한 기차역에서의 독일어 사용 상황이 와닿지 않았지만, 독일에서 직접 기차역 안내방송을 반복적으로 듣고, 그 상황에 처하다 보니 일상생활의 독일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3. 학습 방법

독일에서의 독일어 학습은 한국에서와 달리 항상 배운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바이로이트는 소도시 특성상 영어를 하지 못하는 독일인도 많아 독일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독일어를 사용해보며 많은 표현을 익힐 수 있었다. 또한 도로 표지판과 같이 주변 환경에서 쉽게 독일어를 접할 수 있어 관련된 표현을 외우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습득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바이로이트 대학교의 독일어 수업은 독일어로만 설명하고, 모국어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보다 더 몰입적인 학습이 가능하여 독일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되었다.

III. 생활

1. 입국시 필요한 물품 및 현지 물가 수준

거의 모든 생필품은 일반 마트를 비롯하여, 한국의 다이소와 비슷한 느낌의 Tedi, Woolworth 등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 현지 마트(Lidl, Rewe 등)의 물가는 한국과 비슷한 편이며, 환율에 따른 편차가 있다. 독일의 기온이 여름에도 1자릿대로 내려가는 경우가 꽤 있어 방한을 위한 전기장판 등을 챙겨오면 도움이 된다. 바이로이트 에도 아시안 마켓이 있는 편이라 한국 식재료를 구할 수 있으나, 코인육수와 같은 조미료는 구하기 힘드니 최대한 많이 가져오는 것을 추천한다.

2. 식사 및 편의시설(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높은 외식 물가로 인해 대부분의 교환학생은 음식을 직접 해먹는 편이며, 학생식당(Mensa)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 공보험을 지불하면 진료비는 무료이고, 약값은 자가부담금 10유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독일 병원에는 예약이 보통 필수이고, 예약을 잡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바이로이트 내에서는 학교 등록비에 포함된 Semester Ticket로 학생증 지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그 외 지역의 고속 열차(ICE, IC)를 제외한 열차를 이용한다면 Deutschlandticket을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학생 인증 시 Semester Ticket 가격을 제외한 30유로 정도의 가격으로 월간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다.

교환학생은 보통 선불 유심을 구매하는 편이다. Aldi Talk, Vodafone등의 선불 유심 요금제를 10유로부터 선택할 수 있으며, 브랜드별로 가격 편차는 있는 편이다.

3. 여가 생활 및 체험 활동 내용

도이칠란트 티켓(Deutschland Ticket)을 이용하여 근교 도시(뉘른베르크, 뮌헨, 밤베르크 등)를 여행할 수 있고, 뉘른베르크 공항에서 저가항공사를 이용하여 부다페스트, 포르투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할 수 있다. 플릭스버스(Flixbus)를 활용하면 싼 가격에 다른 유럽 국가(체코, 프랑스 등)를 여행할 수 있어 경비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

바이로이트 대학교에 30유로를 결제하면 학교의 스포츠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하며, ESN 등의 학교 행사도 종종 열리는 편이다. 스피드프렌딩 같은 학기 초반 행사에 참여하면 많은 외국인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한국어 언어교환 프로그램 (Koreanisch Stammtisch)에 참여하면 한국에 교환학생을 다녀왔거나, 한국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친구를 쉽게 만날 수 있다.

4. 체류기간 소요 경비(최대한 자세하게 표로 작성)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기숙사 보증금(-)	350	0	0	0	0	0
슈페어콘토 지급(+)	0	0	0	0	992	992
월세(-)	275	0	275	275	287	287
공보험비(-)	0	0	0	269.25	144.24	146.29
라디오세(-)	0	0	0	0	110.16	0
교통비(-)	82.14	12.75	24.86	24.86	28.86	28.86
학교등록비 (-)	165.84	0	0	0	0	165.84
통신비(-)	0	10	8.99	8.99	8.99	8.99
식비(-)	0	171	134.53	139.41	175.68	68.48
여가생활비 (-)	0	275.65	35.5	34.85	61.77	6.19

여행비용(-)	0	51.33	492.46	200.2	91.33	277.06
합계	872.98	520.73	971.34	952.56	83.97	3.29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기숙사 보증금(-)	0	0	0	0	0	0
슈페어콘토지급(+)	992	992	992	992	992	992
월세(-)	287	287	287	287	287	287
공보험비(-)	146.29	146.29	146.29	146.29	146.29	146.29
라디오세(-)	0	36.72	0	0	55.08	0
교통비(-)	28.86	28.86	28.86	28.86	28.86	28.86
학교등록비 (-)	0	0	0	0	0	0
통신비(-)	8.99	8.99	8.99	8.99	8.99	8.99
식비(-)	93.2	105.69	79.96	170.76	148.12	120.3
여가생활비 (-)	14.49	31.37	6.25	26.58	15.55	10.5
여행비용(-)	147.49	0	417.08	0	357.86	488.14
합계	265.68	347.08	17.57	323.52	-55.75	-98.08

*항공료

인천국제공항->프랑크푸르트공항 (7월 23일 예매)

756,200 원

프랑크푸르트공항->베이징공항(경유)->김포공항 (7월 7일 예매)

791,000원

IV.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1. 참가 성과(참가 후 느낀 점 등)

독일어문화학을 전공하며 독일어와 독일 문화를 배웠지만 실제 경험해보지 못해 학문과 경험 간의 간극이 존재했다. 그러나 바이로이트 대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내용을

실제 몸으로 경험하고, 배웠던 독일어를 많은 상황에서 사용해보며 배웠던 전공 지식이 좀 더 와닿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독일어 실력이 부족함을 느끼고, 독일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렇기에 원래 계획은 1학기 B1.1 수업을 듣고 2학기에 B1.2 수업을 듣는 것이었지만, 방학 기간에 부족한 독일어 공부를 통해 2학기에는 B2.1 수업을 들었으며, Telc B2 시험을 준비하며 말하기 시험에서 70% 이상의 점수를 받는 등 독일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유의미한 실력 상승이 있었다.

2. 향후 계획(학업 계획, 진로 계획)

독일에서 지내면서 독일의 문화나 생활방법을 몸소 배우게 되었다. 생각보다 나와 독일이 잘 맞다는 점을 느꼈고, 졸업 이후 워킹홀리데이를 독일에서 하며 한국에서 배우기 힘든 실제 독일어 사용 방법을 익히고, 독일에서의 취업은 어떤지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향후 독일에서의 거주를 고려하고 있다.

3. 향후 참가 예정 학생들을 위한 조언

독일에서의 행정처리는 느리고 변수가 많은 편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여유 시간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독일과 한국은 수많은 문화 차이가 존재한다.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의 화폐 단위는 작기 때문에(1유로 = 1700원 등) 계획을 잘 수립하여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슈페어콘토의 금액(992유로) 정도면 1달을 지내는데 큰 무리가 없는 편이지만, 계획 없이 지출을 한다면 추가 환전을 해야 할 수도 있다.

4. 기타사항

다른 기숙사 관리인에 비해 Birken 기숙사의 관리인은 친절함 편이라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한 Birken 기숙사는 최근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 카펫 바닥이 아닌 장판 바닥으로 바뀐 방이 늘어나고 있어 Birken 기숙사를 추천한다.

V. 활동 사진(2장 이상, 설명 필수)



비어켄(Birken) 기숙사의 모습. 카펫 바닥인 기숙사(좌)와 새로 장판으로 바뀐 기숙사(우) 사진.



비어켄 기숙사 앞에 있는 수영장인 크로이츠슈타인바트(Kreuzsteinbad)의 모습.
안멜둥을 하고 주는 쿠폰북에 있는 쿠폰과 학생증 지참 시 1회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수업을 듣는 강의실 사진.



디즈니 성의 모티브가 된 노이슈반슈타인성(Neuschwanstein Schloss).



1월 1일이 되는 00시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불꽃놀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바이로이트의 크리스마스 마켓(Winterdorf).



8월에 진행되는 바이로이트의 바그너 페스트(Bayreuther Wagner Fest)의 오픈에어.